

11월 주요 이슈

'치유' 테마의 관광개발사업 활성화

■ 지역 특화형 관광개발사업 추진

- 충남 논산 '병영테마파크' 개장
- 충남 태안 드론 테마파크 조성
- 동두천 외국인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

■ 관광교통 인프라 개선

- 원주~강릉 KTX 개통
- 파주 임진강 곤돌라 조성



11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

본격적인 '치유' 테마 관광시대의 개막

- 최근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, 여행의 중요기능으로 몸과 마음의 힐링 (healing), 치유가 부각됨에 따라 '힐링과 치유'는 지역관광개발의 중요한 테마로 각광받게 됨.
- 전북 순창군은 지역의 장류산업과 연계하여,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쉼(SHIL)랜드 조성 사업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함.
- 전남 완도군은 해양기후, 해수, 해염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, 2022년까지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함.
-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남 완도군, 충남 태안군, 경북 울진군, 경남 고성군을 선정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.
- 이밖에도 의료관광, 음식관광 등의 활성화로 한동안 '치유'관련 테마 시설의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됨.

대규모 해양형 리조트 개발 본격화

- 국내 주요 레저기업의 신규 개발프로젝트는 대부분 해안 또는 수변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임.
- 거제도의 경우, 거가대교(부산-거제)의 개통 이후 2013년에 515실 규모의 대명리조트가 개장되고,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2018년 7월 개장을 목표로 465실의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 중에 있으며, 이 밖에도 장목관광단지, 옥포대첩 일원 등이 대규모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이 추진됨.
- 여수 경도 관광단지의 경우, 미래에셋에서 고품격 해양관광단지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여 2019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임.
- 강원권의 경우,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일원에도 '세인트존스 경포 호텔(1,091실)' 등의 대규모 해양형 리조트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.
- 이 밖에도 충남 보령, 경기 강화, 인천광역시 영종도 일원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됨.



관광투자 관련 News

▣ 순창군, '휴식과 치유를 동시에' 쉼랜드 조성

- 전북 순창군이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신개념 관광지 쉼랜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
- 쉼(SHIL:Sunchang Health Institute Longevity) 랜드 조성 사업은 2019년까지 8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.
- 현재 주변 경관 조성에 착수했으며 다양한 치유식물을 심고 시냇물, 세족장, 등을 갖춘 산책로 등을 조성 중임.
- 쉼랜드 주요 공간에는 건강 장수연구소, 장수체험과학관, 음식문화실습관 등이 운영 중에 있어 사업 완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.



운영 중에 있어 사업 완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.

▣ 완도군, 해양치유 산업을 지역 미래 전략산업으로

- 전남 완도군이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국내 해양치유 산업 성장을 이끌 거점으로 조성됨.
- 해양치유는 해양기후, 해수, 해니(泥), 해염(鹽), 해사(沙) 등을 활용해 신체·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함.
- 독일,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해양치유 자원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과학, 관광산업과 연계해가고 있음.
- 완도는 해양치유 자원의 보고로서 2022년까지 국비 433억원, 지방비 454억원을 들여 전문인력 양성, 산업화 모델 개발,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함.



▣ 파주시, 곤돌라 타고 임진강 관광

- 경기도 파주시는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진강을 곤돌라로 가로지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함.
- 곤돌라는 임진강 남쪽 임진각 관광지과 안보체험관인 임진강 북쪽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간 810m를 연결함.
-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에서 2km 남짓 떨어져 있는 과거 미군기지로서 현재 안보관광지로 운영되고 있음.
- 2019년 완공예정인 곤돌라 조성으로 캠프 그리브스와 임진각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.



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치유 산업 육성

-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협력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남 완도군, 충남 태안군, 경북 울진군, 경남 고성군을 최종 선정함.
- 해양치유는 해양기후, 해수, 해니(泥), 해염(鹽), 해사(沙) 등을 활용해 신체·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함.
- 해외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를 조성 등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.
- 해수부는 선발된 4개 지자체와 협력해 2년간 치유자원 효능 검증, 신사업 개발 등 연구를 추진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을 만들 계획임.

▣ 평택시, 바다 메워 항만도시 건설

- 경기 평택시는 서해를 매립해 그 위에 1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항만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함.
- 시는 평택·당진항 구역내 200만7천㎡의 바다를 매립, 오는 2020까지 주거 및 업무가 가능한 항만도시를 건설할 계획임.
- 항만구역내 바다를 매립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로서, 시행사 선정후 내년 초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임.
- 도로·공원·주차장 등 기반시설 50%, 주거시설 15%를 포함한 상업·업무용지 등 항만지원시설 30%, 유통·관광숙박·자동차 클러스터 20% 등으로 조성될 계획임.



▣ 충남 논산에 '병영테마파크' 개장

- 국방도시 충남 논산에 한류와 병영 체험을 접목한 병영테마파크 '선사인랜드'가 개장함.
- 선사인랜드는 시가지 전투체험, 가상현실(VR) 체험, 스크린 사격, 실내 사격 등 다양한 군사 병영 문화를 콘텐츠화한 레저·스포츠 공간임.
-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서바이벌 체험장, 온라인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서든어택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됨.
- 시는 선사인랜드 개장과 함께 논산·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국방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.



▣ 한화호텔앤드리조트, 경남 거제에 프리미엄 리조트 건설

-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경남 거제에 국내 복합 럭셔리 휴양 시설을 조성함.
-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는 3만4천 평 부지에 총 사업비 약 2천억 원을 투자한 새로운 컨셉트의 고급 해양 마리나 리조트 단지임.
- 패밀리 118실, 스위트 222실과 로얄 27실로 총 465실을 갖췄으며 프리미엄 객실 100실(르 씨엘)을 배치하고, 고품격 휴식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.
- 거제 벨버디어는 거가대교를 건너 10분 거리이며, 대구에서 1시간 30분, 울산에서 1시간, 진주에서 50분, 부산에서 35분 등 경상도와 전라도의 주요 거점 도시에서 접근성이 용이함.

▣ 원주~강릉 고속철도 연말 개통

- 원주~강릉 고속철도 개통으로 강원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함.
- 평창군은 고속철 개통에 따른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평창역과 진부역의 교통편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.
- 또한 평창역사에서 평창IC를 잇는 도로인 국도 31호선 방림~장평 도로건설 공사도 조기 완공할 예정임.
- 중·장기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,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창·진부역사를 거점으로 다양한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.

▣ 여수 경도, 경제자유구역 편입으로 관광 개발 탄력

- 미래에셋이 1조원대를 투자하기로 한 여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됨.
-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육지와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.
- 미래에셋은 그동안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국제 공모를 추진해 왔음.
- 본격적인 공사는 실시설계,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, 연륙교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뒤에 2019년 말에 착공 예정임.



▣ 주한미군기지 주변 발전계획 5년 연장

-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종합계획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해 시행함.
- 행정안전부는 현지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사업은 제외하되 주민이 원하는 신규사업들은 대거 추진하기로 함.
- 신규 사업으로는 의정부 국도 39호선(송추길) 확장,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특성화 등 주민이 희망했던 사업으로 2조 3천5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.
-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른 총 사업규모는 총 536건, 42조3천726억원으로 당초 종합계획과 비교해 추진사업은 늘었지만, 예산은 소폭 줄었음.

▣ 보령 셋개 포구 뱃길 복원, 태안 드론 테마파크 조성

- 충남 보령의 관문역할을 했던 셋개포구의 뱃길이 복원되고, 태안에는 드론 등 무선조종기기를 종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드론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임..
- 충남도는 31일 저발전 지역의 내부 역량 강화 및 성장동력 사업 발굴·추진을 위한 '제3기 충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'을 확정함.
- 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공주, 보령, 논산, 금산, 부여, 서천, 청양, 태안 등 8개 시·군에 2천252억7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.

※ 관광투자 뉴스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기사 관련 지자체 및 사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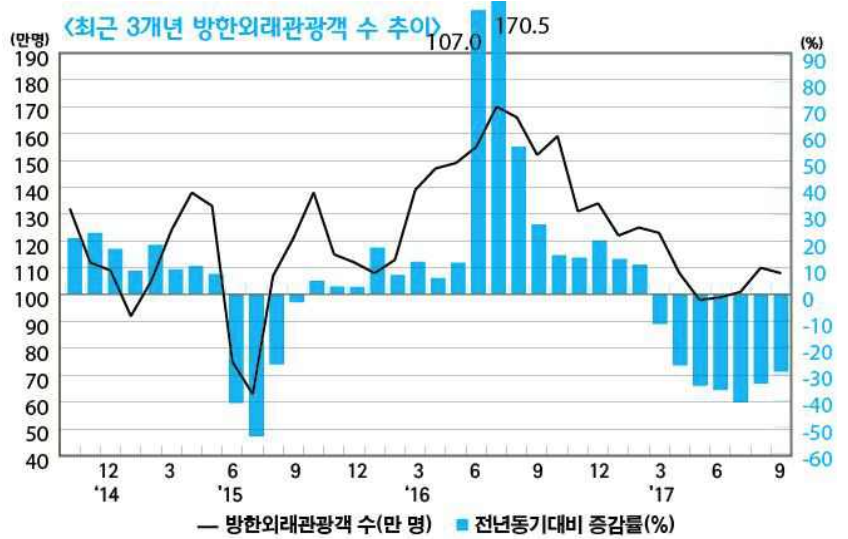
2017년 관광동향 분석 (2017년 9월 기준)

방한외래관광객

9월 방한외래관광객 1,078,653명, 전년동기(1,523,928명) 대비 29.2% 감소

(단위 : 명, %)		
구분	방한외래관광객	증감률
2011년	9,794,796	11.3
2012년	11,140,028	13.7
2013년	12,175,550	9.3
2014년	14,201,516	16.6
2015년	13,231,651	-6.8
2016년	17,241,823	30.3
'17년 9월	1,078,653	-29.2
2017년	9,942,835	-23.5

주: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



주요 국가별 동향

- 일본인관광객 219,968명 (5.4% 증가)
- 중국인관광객 318,682명 (56.1% 감소)
- 미국인관광객 70,933명 (6.3% 감소)

(단위, 천명, %)							
구분	일본	중국	미국	대만	홍콩	러시아	
2011년	3,289(8.8)	2,220(18.4)	662(1.3)	428(5.4)	281(22.9)	155(2.7)	
2012년	3,519(7.0)	2,837(27.8)	698(5.5)	548(28.0)	360(28.2)	167(7.7)	
2013년	2,748(-21.9)	4,327(52.5)	722(3.5)	545(-0.7)	400(11.2)	175(5.2)	
2014년	2,280(-17.0)	6,127(41.6)	770(6.6)	644(18.2)	558(39.4)	214(22.2)	
2015년	1,838(-19.4)	5,984(-2.3)	768(-0.3)	518(-19.5)	523(-6.3)	188(-12.3)	
2016년	2,298(25.0)	8,068(34.8)	866(12.8)	833(60.8)	651(24.3)	234(24.4)	
'17년9월	220(5.4)	319(-56.1)	71(-6.3)	74(0.7)	45(6.7)	23(18.9)	
2017년	1,725(3.9)	3,192(-49.6)	653(0.6)	692(9.8)	491(4.4)	200(17.2)	

주요 대륙별 동향

- 아시아주 841,547명 (33.9% 감소)
- 미주91,382명 (8.3% 감소)

(단위: 천 명, %)						
구분	아시아주	중동	미주	구주	대양주	아프리카주
2011년	7,662(13.5)	104(16.7)	827(1.7)	681(5.5)	156(6.5)	37(9.5)
2012년	8,887(16.0)	122(17.3)	876(5.9)	717(5.3)	166(6.8)	41(11.5)
2013년	9,848(10.8)	131(6.8)	916(4.5)	768(7.1)	160(-3.8)	43(5.3)
2014년	11,709(18.9)	155(18.9)	974(6.4)	849(10.5)	178(11.2)	44(1.5)
2015년	10,799(-7.8)	168(8.5)	974(0.0)	806(-5.0)	168(-5.5)	45(1.1)
2016년	14,464(33.9)	194(15.0)	1,116(14.6)	943(16.9)	191(13.4)	57(28.8)
'17년9월	842(-33.9)	20(14.1)	91(-8.3)	80(-4.2)	16(-11.4)	5(-5.3)
2017년	7,853(-28.2)	163(11.1)	840(0.8)	708(1.0)	142(2.7)	38(-13.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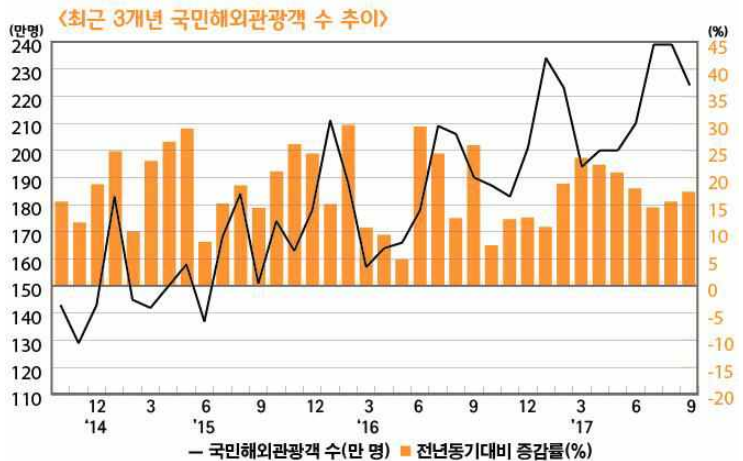
주: (%)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

국민해외관광객

9월 국민해외관광객 2,236,500명, 전년동기(1,904,524명) 대비 17.4% 증가

(단위 : 명, %)		
구분	국민해외관광객	증감률
2011년	12,693,733	1.6
2012년	13,736,976	8.2
2013년	14,846,485	8.1
2014년	16,080,684	8.3
2015년	19,310,430	20.1
2016년	22,383,190	15.9
'17년 9월	2,236,500	17.4
2017년	19,632,010	17.7

주: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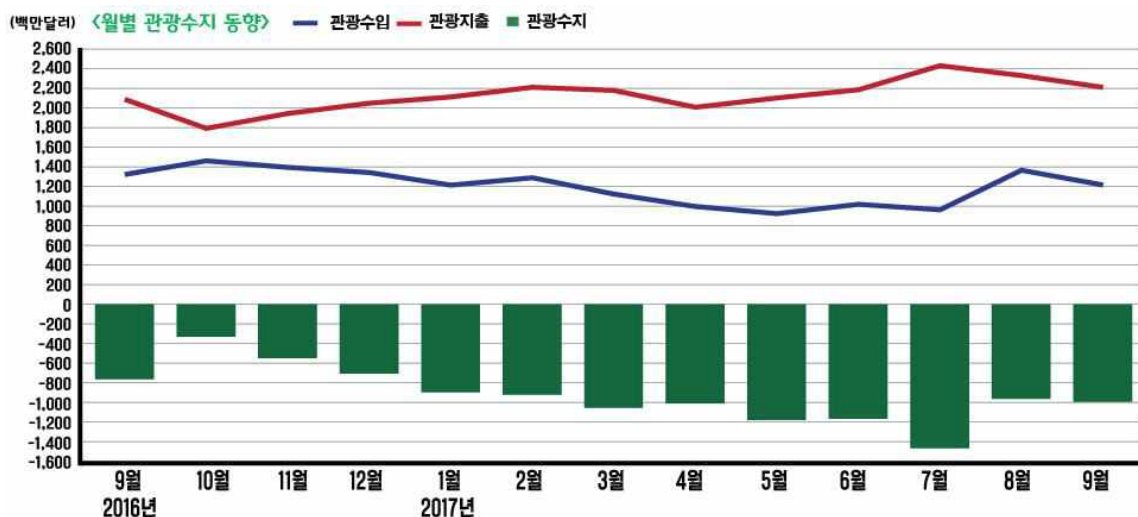


한국관광수지 (2017.11.03. 한국은행)

(단위, 백만 달러, %)

구분	관광수입	1인당 관광수입(\$)	관광지출	1인당 관광지출(\$)	관광수지	유학수지
2011년	12,347(20.0)	*1,261	15,531(8.8)	*1,224	-3,184	-4,261
2012년	13,357(8.2)	*1,199	16,495(6.2)	*1,201	-3,136	-4,080
2013년	14,525(8.7)	*1,193	17,341(5.1)	*1,168	-2,816	-4,203
2014년	17,712(21.9)	*1,247	19,470(12.3)	*1,211	-1,758	-3,598
2015년	15,092(-14.8)	*1,141	21,528(10.6)	*1,115	-6,436	-3,619
2016년 _p	17,088(13.0)	*991	23,123(7.4)	*1,033	-6,036	-3,396
'17년9월 _p	1,210(-8.2)	*1,121	2,205(5.8)	*986	-995	-318
2017년 _p	10,057(-22.1)	*1,012	19,721(13.6)	*1,005	-9,664	-2,585

주: ()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/ P는 잠정치를 의미, 1인당 관광수입=관광수입/방한외대관광객, 1인당 관광지출=관광지출/국민해외관광객, *평균값



2017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년 9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.